

'96한국건축문화大賞 수상작 발표

Korean Architecture Awards '96

우리 협회와 건교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한국건축문화大賞」의 올 해 수상작이 발표됐다. 총 311점(준공건축물부문 75점, 계획건축물부문 236점)이 출품되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준공건축물부문 대상에 대법원청사를 비롯해 33작품이, 계획건축물부문 최우수상에 흔적(이진수, 김현숙작)을 비롯해 45작품이 각각 입상했다.

'96한국건축문화대상은 71년 이후 우리 협회가 개최해온 「한국건축전」과 92년부터 건설부(건교부)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94년부터 통합, '환경과 조화, 인간중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5회째 개최되었다.

21세기 신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국내최대 규모의 행사인 「'96한국건축문화대상」은 역사의 그릇인 오늘의 건축물을 발표하여 이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은 물론(특히 계획건축물부문은) 올해부터 신인·학생 구분을 없애고, 일반인까지 참가대상 폭을 넓힘으로써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를 제시, 동일 주제에 대한 연구와 문제점해결을 찾게 함으로써 건축에 대한 인식을 확대, 우수한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 이 시대의 진정한 건축문화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준공건축물부문은 대상(대통령표창) 본상, 우수상, 입선, 공로상으로 구분 시상했다. 9월 17일(화) 오전 11시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있는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준공건축물부문 대상작품 설계자와 시공자에게는 트로피와 부상으로 해외건축시찰의 특전이 주어졌으며, 건축주에게는 트로피와 해당 건축물부착용 동판이 수여됐다. 특히 금년부터 정부가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선도적으로 공헌한 건축인에게 그 공을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표창을 신설, 수상하게 됐다.

본상은 주거부문 3점, 비주거부문 3점으로 나누어 시상했으며, 대상과 같이 설계자, 시공자에게는 트로피와 해외시찰의 특전이, 건축주에게는 트로피와 건물부착용 동판이 수여됐다.

우수상은 설계부문과 시공부문에 구분 시상했으며,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해외시찰의 특전이 주어졌다. 입선작에 대해서는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상패가 수여됐다.

올해 공로상은 1985년 창립이래 정부의 주택정책에 앞장서 집없는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 영세민에게는 임대주택을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94년부터는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을 펼쳐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212동을 보수하고 주택임차금을 전달하고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수상했다. 계획건축물부문은 최우수상1점, 우수상2점, 장려상7점, 입선35점을 선정, 시상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최우수상은 상금 7백만원과 ARCASIA 잼버리 파견 특전이 주어졌으며, 우수상에는 상금 3백만원이, 장려상에는 상금 1백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준공 건축물 부문

▶ 작품접수 현황(75점)

- 접수마감 : 96. 8. 20(화)
- 주거부문 : 28점
- 비주거부문 : 47점

▶ 심사일자

- 1차심사(사진첨심사) : 96. 8. 23(금)
- 2차심사(현장심사) : 96. 8. 26(월)~30(금)

▶ 심사위원

- 위원장 : 한창진(전 대한건축사협회장, 한정건축 대표)
- 위 원 : 박철립(대우건설기술연구소 전무)
- 심우갑(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
- 안영배(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 이호진(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정 훈(서울경제신문사 부국장)
- 지 순(간삼건축 대표, 95년도 대상 수상자)

▶ 전시기간 및 장소

- 기간 : 96. 9. 17(화)~9.24(화)
-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600년기념관



전시회 개막식 테이프 커팅 광경

▶ 수상작 현황

수상 구분	작 품 명	건 축 사	시 공 자	건 축 주	비 고
대상	대법원청사	(주)원도시건축 윤승중, 변용, 김석주	현대건설(주)	대법원	
	대통령표창:(주)원도시건축 대표		윤승중		
본상	분당주공아파트	시명종합건축사사무소 안희상	현대산업개발(주)	대한주택 공사	주거
	태평양파크빌라트	(주)건원국제종합건축사 사무소 한현호	태평양개발(주)	태평양개발(주)	
	산내지구9단지아파트	토문건축사사무소 최두호, 한남수, 최기철	진흥기업(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수원 야외음악당	(주)삼우설계 조주환, 한종률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수원시	배우기
	진로쿠어스맥주공장 건축동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엑스 박종기, 이영환 + 삼성엔지니어링(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진로쿠어스맥주(주)	
	용문 청소년수련원	건축사사무소 아키반 김석철	(주)한울종합건설	(제천)주교서울대교 유지재단 이사장 김수환	
우수상	SBS탄현제작센터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김석철			설계
	포스코 칠골조아파트		포스코개발(주)		시공
입선	일산주택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이상연 이상연	이정구		주거
	고양 중산 현대아파트	건축사사무소 범아건축 김준호	현대산업개발(주)		
	분당 현대맨션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정규식	(주)현대산업개발		
	봉천동 계건축아파트	건축사사무소 동이 손기찬	선경건설(주)		
	당산동 강마을아파트	동인환경 건축사사무소 윤태용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일산주택	경영위치 건축사사무소 김승희, 강원필	황환수		
	고양 행신지구 동성아파트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나라 황장석	(주)동성종합건설		
	쌍용분당빌라	종합건축사사무소 거림 김길수	쌍용건설(주)		
	마산주택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김인철	(주)화인토탈건설		
	CLUB700 여자기숙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이해육	한솔건설(주)		
	갤러리현대	상지종합건축사사무소 정명옥, 배병길건축연구소 배병길	(주)대원건설		
	태신빌딩	건축사사무소 인우건축 함인선	동북건설(주)		
	우노꼬레	건축사사무소 인우건축 함인선	(주)나산종합건설		
	글라스타워	(주)삼우설계 김창수, 박승, 한상목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대구알리앙스예식장	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이성관	(주)보성		
	원실업 천안공장	양기주방 건축사사무소 최승원	효성중공업(주)		
	동일복지문화원	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김영섭	남원종합건설 (주)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동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민현식	두산건설(주)		
	하저교회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김인철	(주)오림건설		
	(주)태영사옥	(주)원도시건축 변용	(주)태영		
신경그룹종합연구소	(주)정림건축	선경건설(주)			
삼보컴퓨터사옥	(주)정림건축	LG건설(주)			
대전기톨릭대학성당	(주)정림건축	삼양건설(주)			
주영백화점	(주)정림건축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공로상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계획 건축물 부문

▶ 주제

- 2002년 월드컵축구 전용경기장
6만명 이상을 수용하여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서 대지위치, 시설물 규모는 작가가 임
의 설정하여 계획할 것.
- 북촌 마을 다시 그리기
 - 설계내용 : 공동주택(10~15세대)
 - 대지 : 북촌마을 구역내 몇개의 필지를 임의 선택(서
울시 종로구 가회동, 계동지역)
 - 세대수 및 평형 : 임의, 단 현실성(현행법규, 지가, 임
대가 등)이 있는 구성
 - 기타시설 : 법정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 작품접수 현황

- 접수마감 : 96. 9. 9(월)
- 주제1) 2002년 월드컵축구 전용경기장 : 29점
- 주제2) 북촌마을 다시 그리기 : 207점

▶ 심사일자

- 96. 9. 11(수)

▶ 심사위원

- 위원장 : 이종관(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위원 : 김광현(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인철(아르키움건축 대표)
김한근(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한건축 대표)
방철린(인도건축 대표)
승효상(이로재 건축 대표)
이리형(한양대 부총장)

▶ 전시기간 및 장소

- 기간 : 96. 9. 17(화)~9. 24(화)
-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 600년 기념관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규태 회장

▶ 수상작 현황

수상 구분	작 품 명	성 명	소 속
최우수상	흔적	이진수, 김현숙	건국대 건축공학과 4년
우수상	전통의 골재를 넘어	김종문, 한상범	엑토건축사사무소
	청담	천 보, 김태연	홍익대 대학원, 홍익대 건축공학과 4년
장려상	부분에서 전체로	정준화, 김종원	한양대 건축공학과 4년
	도시형 집합주거	김민성	부경대 건축과 3년
	삶의 연속성을 찾아	정민영	코아건축사사무소
	향	백정현, 송현모	서울산업대 건축설계학과 졸업, 홍익대 산업대학원 건축설계학과
	몽유가회도	강덕희, 김홍근	동국대 건축공학과 4년
	북촌마을 다시그리기	구분호, 이훈	일건건축사사무소, 동국대 건축공학과 4년
	AQUADIUM	이중환, 조승현	홍익대 건축과 3년
입 선	일상회복	이우영, 금창영	경북대 건축공학과
	진보를 위한 퇴행	김성균, 조영욱	경북대 건축공학과
	Keep & Change	송대호, 윤종국	동아대학교 건축과 4년, 동아대학교 대학원
	비움에 두 마당	심우열, 김민정	동신대 건축공학 3년, 1년
	정주한다는 것에 관해	이우락, 김세경	동아대 건축학과 4년
	OVERALL	김진오, 김찬용	국민대 건축과
	하늘을 울음	김광일, 박현균	단국대 건축공학과
	1996, 가회마을	하현진, 장세훈	부경대학교 건축과 3년
	길이 있는 풍경	이승렬, 이정훈	동의대 건축공학과 4년
	후(後)	김상석, 박진호	부경대 건축공학과
	길, 마당 그리고 마을	전자홍, 정경모	광주대 건축과 3년
	발상전환	정재용, 장경철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진화	박중학, 김상현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이음동의어	김희원	인천대 건축공학과
	들어다보기, 내다보기	정종남, 김현주	부경대 건축공학과 3년
	Single-Wing House	김지선, 김지원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일번지의 가능성	고막선, 박명원	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2년
	북촌마을 다시그리기	이수영, 김재호	동아대 건축공학과 4년
	우리를 영원하게 하는것은...	김형수, 이정화	부경대 건축공학과 4년
	도시 · 주거 · 삶	안미선	전북대 건축공학과 3년
	아보림경기장	강봉준	숭실대 건축공학과
	희상	한남수, 김성오	부경대 건축공학과 3년
	마을만들기	이동서, 고수정	부경대학교 건축과
	정서	김연주, 박순홍	홍익대 건축과
	여울목	이세명, 김영산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여백	양장민, 박현수	동양공전 건축공학과
	삶 엮보기	김남숙, 권혁만	강원대 건축공학과
	북촌 다시그리기	김형진, 임채경	부경대 건축공학과
	Remember The~ Thing	송기훈, 신혜선	건축모임 '가'
	흔적	박동수, 허장렬	충북대 건축공학과
	인클로우저	류상열, 윤신	"
	큰 나무가 있는 동네	김현준, 김태영	대림산업 연구개발부 이로재건축
계용	서정일, 김혁준	사간건축, 동국대 건축과 4년	
남겨진 골목	장선도, 한소현	성림건축, 인천대학교	
문번호에서 문패로	이지윤	한양대 건축공학과	

심 사 평

준공건축물부문

■ 박철림 / 대우건설기술연구소 전무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건 그나라의 종교, 문화, 기술 등 모든 것을 종합해 빚어낸 작품이 곧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예부터衣食住는 인간의 삶의 기본요소가 되고 그중에서도 역사적, 시대적 평가를 받아온 것이 바로 住, 건축물이다.

건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의 건축물 중 어느 것이 가장 문화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주거부문에서 우리의 전통한옥과 사찰건축은 이미 동양의 조용하고 신비한 美를 간직한 예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세계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70년대부터 소위 집장사가 지은 집, 고속도로向 집이 한국의 크고 작은 마을과 도시의 상당부분을 형성하게 되면서 住의 문화적 가치와는 거리가 먼 서글픈 흔적을 전국 곳곳에 남기게 됐다.

비주거부문의 건물에서도 최근에 규모가 큰 건물은 많이 늘었지만 문화적으로 자랑할만한 것은 별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5회째를 맞는 '96한국건축문화대상은 보다 인간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건축문화를 향상시키고자 한 매우 가치있는 행사였다.

그러면 과연 어떤 건축물이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물인가.

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다만 특급 호텔 수준의 고급자재와 외제가구 집기로 치장한 건축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주택이나 업무용 건물에 도시와 그림이 있고, 조용한 음악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내부공간이 있으며,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고 이웃과 더불어 아끼고 깨끗하게 유지해가는 아름다운 외부공간이 있는 건축물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건축은 크게 내부공간 구성과 외부 조형미로 평가한다. 건축물 하나하나가 모여 마을과 도시를 이루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부공간은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기본문제제로 접어두고, 자연과의 조화와 함께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외부 조형미와 조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외장 자재와 컬러의 선택에는 수준 높은 안목과 관심이 필요하다. 금번 신청작품을 크게 주거(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와 비주거(업무용, 문화, 체육, 공장,



추경석 건교부 장관의 치사 광경

종교건물)로 구분해 여러날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수없이 반복되는 흥분과 실망으로 피곤함을 잊을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건축가만 있으면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또한번 새롭게 느낀 중요한 사실은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건축주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좋은 건축가의 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작품화하는 좋은 시공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가 삼위일체로 서로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주거부문의 심사에서도 주택 내부설계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용적률이 낮은 분당주공아파트가 공원같은 조경설계로 본상에 선정됐고 일부 빌라에서는 너무 호화로운 내부시설이 지적되기도 했다.

비주거부문에서는 몇가지 새롭고 희망적인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멋없고 딱딱하고 상업적인 건축물로만 상징되던 공장, 예식장, 백화점 등의 건축물에서도 보다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려는 노력과 흔적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수원야외음악당은 건축물 자체보다는 문화의 도시 수원의 면목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에도 없는 본격적인 야외음악당을 건축주인 수원시가 귀중한 땅을 흔쾌히 제공하고 기업은 이익의 사회환원을 실천, 공원과 포근한 잔디가 있는 야외음악당을 조성해 시민의 음악, 예술적 정서함양에 기여했다.

大賞인 대법원 청사는 건물 외관이 모두 백색 화강석으로 처리돼 전체 외관이 창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내외부의 설계수준과 공사품질 등 종합적인 면에서 우수해 대상으로 추천됐다.

좋은 건축물은 건물내부의 설계는 물론 외부경관에 있어서 높은 문화적 수준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자연과의 친화적인 조경으로 문화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할 것이다. 또 이런 건축물이 점차 많이 생겨나야 우리의 마을과 도시가 전체적으로 높은 문화적 수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번에 상을 받은 분들과 우리나라 건축문화 조성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돼 우리 건축문화 창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심우갑 /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흔히들 건축은 인간의 삶을 담은 그릇이라고 한다. 건축은 늘 우리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삶의 장소와 배경을 제공해주므로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또한 역으로 우리의 삶이 반영된 형태로 건축이 발전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건축은 우리 시대의 문화, 경제, 사회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활동을 반영하는 결과물인 동시에 그 사회의 문화, 경제, 사회를 기능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개화기 이후 서구 문명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의 건축이 서구 문명 및 건축에 영향을 받게 된지도 근1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건축문화의 수준은 세계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일까 자문해 보면 어쩐지 선뜻 시원한 대답을 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건축가들에 의해 본격적인 건축활동이 시작된 것은 일제 36년과 6.25동란의 쓰라린 비극을 극복하고 난 이후로 이제 4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생각해 보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참으로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자위하기도 한다.

이번에 한국건축문화대상 심사에 참여하여 출품작품을 검토, 비

교하고 수많은 건축물들을 현장을 방문하여 돌아보면서, 좋은 건축을 만들고 훌륭한 건축문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건축가들과 건축 기술자들의 의지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짧은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건축의 미래가 매우 희망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개인적인 소득이 되기도 하였다.

심사대상 건축물들 중 약 삼분의 일 정도인 주거부문 출품작들은 단독주택, 연립형 빌라, 아파트, 주상복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간구성과 건축적 처리가 우수한 주택들도 있었으나 다수인들을 위한 공공적 성격과 배치 및 주거환경을 새로운 개념으로 개선하고자 한 시도가 아파트 주상복합 쪽에 심사위원들의 관심이 쏠렸던 이유가 되었다.

주거부문 심사와 관련하여 아쉽게 생각된 점은 우리의 주거문화, 특히 아파트건축은 분양가 규제를 풀어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은 한 더 이상 괄목할만한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는 점이었다.

비주거부문에서는 업무, 문화, 교육, 종교 등 다양한 유형의 작품들이 출품되었는데 예술성, 공익성, 상징성, 경제성, 시공성 등이 주된 판단의 척도가 되어 수상자들이 선정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의 건축계는 실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미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외국의 세계적인 건축가들에 의해 설계되고 있긴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건축시장은 곧 전면 개방될 수밖에 없게 되어 세계의 우수한 건축가들과 시공회사들이 물밀듯이 국내 건축계를 크게 잠식해 들어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이기엔 우리의 건축가들과 시공회사들이 이들과 어깨를 겨루며 경쟁하여 이길 수 있도록 더욱 실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본 건축문화대상이 이러한 일이 이루어 지는데 크게 기여하는 기폭제 역할이 되어줄 것과,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건축문화가 크게 창달될 것을 기대해 본다.

또, 비록 아직은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건축가가 우리에게겐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건축 기술자들에 의해 우수한 건축물들이 자랑스럽게 지어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의 건축가들이 세계적인 건축가로 이름을 떨칠 날도 곧 오리라 기대해 본다.

계획건축물부문

■ 방철린 / 인토건축 대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올해 처음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였



대상 수상자 시상 광경

다. 두개의 주제가 정해졌지만 '2002년 월드컵 축구전용 경기장'은 응모자수도 적었거니와 그나마 응모작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기대치 이하였다. 반면 전체 응모작의 90%에 육박하는 응모자수를 보인 '북촌마을 다시 그리기'는 많은 작품이 예년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수작들이어서 많은 젊은층의 건축학도들이 우리 마을만들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것 같아 마음 뿌듯하다. 또한 이젠 대형 프로젝트나 주제이어야만 대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작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려는 풍토가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아 안심이 된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환경단위들이 사고의 깊이없이 다루어질 때 그리고 그 단위들의 관계들이 소홀이 완성되어질 때 그 단위의 구성적 집합체로서의 전체성은 생명력을 가질 수 없고 그렇게 작은 단위적 요소에 값어치가 부여되는 상호관계를 갖고 구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우리 환경의 장래는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응모작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알면서도 무엇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서투르고 따라서 많은 수의 응모작들이 국내의 작가들의 작품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것 같아 아쉬움을 갖게 한다. 일반적으로 창작은 모방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사고의 전이없이 무작정 행해지는 모방은 참신성을 잃기 때문에 가치를 내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발전적일 수 없다. 역사적으로 건축계를 리드하는 많은 건축가들이 역사속의 많은 건축물 속에서 모방의 요소들을 찾지만 피상적으로 표현된 건축 그 자체에서 보다 작가가 갖고있는 사상이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받아들인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녹아든 토대위에 자기의 새로운 정신세계로 발전시키고 또 무장시키고 있음을 보아왔다. 건축문화의 발전은 이러한 새로운 무장의 연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몇개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아쉬움은 주제가 「북촌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북촌마을다운 곳이 안보인다는 점이다. 가로에서부터 집안의 방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끊어질 듯 이어지는 공간적 흐름이나 공간의 체계, 시선의 다양성과 벽면의 흐름 등 건축적 요소의 채택과 구성에 있어 신선함과 탁월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석에서도 「북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응모작들이 입상작에서도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절제되지 않은 과도한 건축 요소의 사용이다.

아무 이유없이 브릿지, 계단, 테크, 가벽... 물론 이러한 건축물 요소들이 값어치 있게 사용되어 공간의 질이 높아지고 그 속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양한 공간적 체험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품들도 많았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곳에 당위성을 갖는, 그리고 생

활에 정신적 도움을 주는 그러한 건축 요소가 적용된 디자인만이 빛을 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건축적 디자인 행위는 진실성이 결여된 허구에 불과할 뿐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다.

■ 김인철 / (주)건축사사무소 아arki움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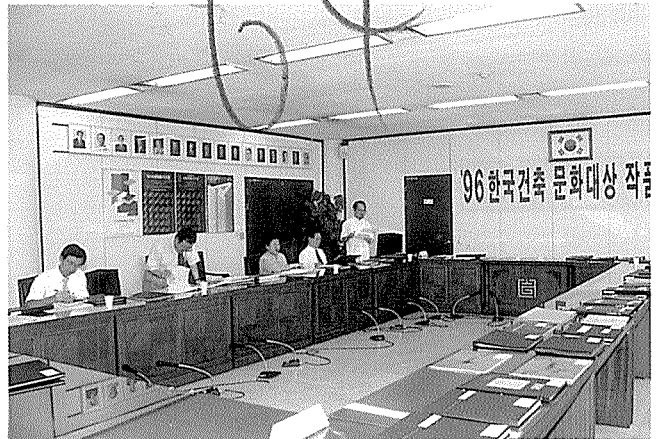
'북촌 마을 다시 그리기'와 '2002 월드컵 축구경기장'이라는 두개의 테마는 상당히 이질적이다. 전자가 우리건축의 본질을 따지는 것이라면, 후자는 다분히 시류에 어울리려는 것이다. 「북촌 마을 다시 그리기」는 출품자들이 대부분이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수년전 기성건축가들이 만든 전시회가 있었으므로 자칫 진부한 주제가 되기 쉬웠고, 일본과 공동개최를 하게 된 축구경기장은 충분한 고려없이 즉흥적으로 제안된 것 같다. 월드컵의 개최를 단순히 운동경기의 국제제행사이며, 그로인한 부수적인 효과가 대단한 것으로만 판단한 결과 「개최결정」 = 「경기장 만들기」라는 등식을 성립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바란다면 공동개최를 이용하여 일본과 한국의 정체성을 확실히하는 무엇인가를 건축적인 입장에서 제안하도록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동양이라는 큰 카테고리과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끼어있는 애매한 입장인 한국의 성격을 일본과 동시에 대비시켜 구분지을 수 있는 기회는 그리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체도 없이 이미 보통명사가 되어버린 「세계화」를 건축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았다면 재미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촌 마을...」에 덤벼든 출품자보다 「축구경기장」에는 적은 수가 모였다. 복수의 주제가 갖는 딜레마이다.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라는 지침때문이었는지 「북촌 마을...」 그룹의 사고방식은 수년전의 기성건축가들과 전혀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 심하게 말하면 누구누구의 것을 적당히 조합하거나 그대로 카피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다시 말해 독창성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신인과 학생급에서 오리지널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자기화 과정조차 보이지 않는다. 과장된 가벽과 의미없는 공중보도로 적당히 멋을 낸 허구의 건축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는 과연 세기말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는 모양이다.

축구경기장은 한마디로 역부족임을 드러냈다. 상징적인 의미만으로 건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진데 전문적인 접근은 도외시한 채 아마추어의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한 내용없는 결과물들만 가득하다. 다른나라의 어떤 것을 본떴다면 차라리 그 원전을 밝히는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공들여 만든 패널과 모형이 아깝게 느껴진다. 제 주도를 사이트로 제안한 것이 많았는데 그쪽의 출품자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



중공건축물부문 심사광경1



중공건축물부문 심사광경 2

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네거티브방식보다 포지티브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입상후보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확실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갖지 않는 비슷비슷한 수준속에서 물건을 골라 내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입선에 든 것은 최소한의 수준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장려상은 그중에서도 내용은 만들려고 시도한 것이며, 우수작과 대상작은 그 이외의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너무 비하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직도 우리의 건축에서 베스트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출품자나 심사자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최고를 향한 과정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는 전제로 작품들을 보았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다. 다음에는 다같이 나아질 것으로 한결음씩 기대를 한다.

■ 김한근 /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올해 건축문화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은 지난해와는 달리 학생과 신인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응모하게 했고, 특정 주제를 주고 이것을 건축적으로 얼마나 잘 해석하고 구체화시켰는가를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첫번째 주제는 전통적 주거지역인 서울시 「가회동·북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계획과 두번째 주제는 월드컵 서울 유치를 기념하기 위해 「월드컵 축구경기장 계획」으로 공고했다. 그중 특히 「월드컵 축구장」의 경우는 학생과 일반신인들이 소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라서 응모자가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첫번째 주제인 「북촌마을 다시 그리기」는 전통한옥보존지구로 묶여있던 지역이 얼마전 제한이 풀리면서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이 주제의 핵심과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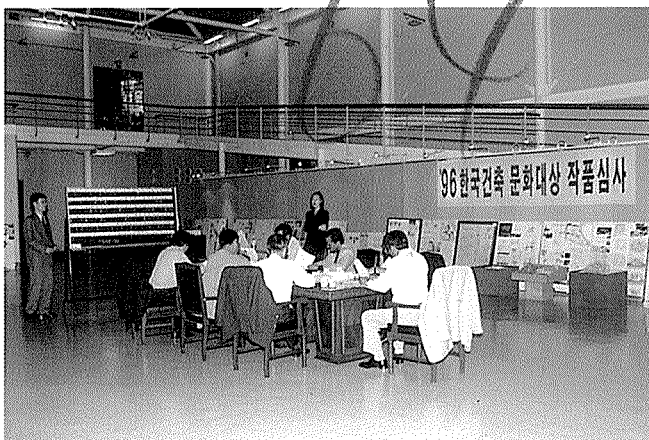
응모자들 대부분이 이 과제 의 문제의식은 확실하게 인식했던 것 같다. 이 문제의식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구체화시켰는가가 심사위원들의 기준이었는데 일부 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참신성이 매우 돋보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욕이 앞서거나 무리한 시도로 당초 의도를 가시화시키는 것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것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주제가 상당히 어렵고 많은 공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좋은 작품이 많았다.

주어진 조건이 고밀화된 형태, 법규와 현실을 감안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힘든 조건들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작품들의 경우 불필요한 가식적 구조물을 이용하여



계획건축물부문 심사광경 1

조형적 효과를 보려는 시도라든가 내부기능간 단위영역기능 등을 충분히 연구하지 못하고 외형과 현재 모양에만 치중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점으로 지적됐다.

월드컵축구장 응모자의 경우 너무 기성 스타디움 형태를 따르고 있어서 참신성이 떨어진 느낌이었다. 계획상품이기 때문에 좀 과감한 시도를 해봄직도 한데 이번에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 승효상 / 이로제건축사사무소 대표

가회동을 중심으로 하는 북촌마을의 재개발에 대한 문제의 제기 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이라는 두가지 주제가 모두 시의적절하기는 해도 학생들에게 매력있는 건축적 이슈는 우리의 전통과 주거공동체라는 사실이 각기 주제별 응모자 수를 말해줬다.

또 구체적 부지가 주어지지 않은 경기장의 설계는 자연히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집중되게 마련이어서 다양한 문제의 복합적 해결이 관건인 정통적 건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소수만이 출품한 경기장 부문에서는 우수상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웠으며 당연히 북촌마을에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됐다. 요즘 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들에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 중의 하나가 건축적 본질에 대한 탐구보다는 건축적 어휘의 사용이 우선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거공동체에서의 길과 마당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추적보다 선배 건축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골몰한 나머지 불필요하고 과장된 장치로서만 현란하게 그려진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저이기 당혹감을 느꼈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들을 제거하고 나면 현존하는 주거보다 나올 바가 없는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또 가회동이라는 역사적 장소성을 아예 도외시키고 공동주거 자체의 해결에만 매달려 있는 것도 건축을 바르게 하는 태도가 아닐 것이지만 그 역사성의 굴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도 창조적 가능성을 목표로 한 건축가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개념의 제안에 뜻이 강한 이런 공모전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낙선된 작품 중에서 오히려 이러한 사항들에 도전한 것들이 있어 관심을 가졌었으나 다른 분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놀라운 건축적 완성도와 높은 수준이 전체 분위기를 지배한 가운데 이러한 촌평을 사족일 뿐이며 특히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에 선정된 작품들의 면면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건축 문화의 앞날이 청명함을 이번의 이 전시회가 증명하게 될 것이다.



계획건축물부문 심사광경2

31